

지리산 심원마을서 반달곰 볼 수 있을까

마을 철거 특별보호구역 지정
자연림 만들어 서식환경 조성
담비·샬·멧돼지·노루 포착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지리산 심원마을(해발 755m)에서 반달가슴곰(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볼 수 있을까.

16일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철거·정비 등 복원사업이 완료된 심원마을 CC(폐쇄회로)·TV에 담비와 샬·멧돼지·노루 등이 포착됐다.

사무소측은 최근 반달가슴곰으로 추정되는 큰 짐승도 찍혔지만 눈이 내린 야간이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원마을은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 만복대(1438m) 등 반달곰 주요 서식처와 가깝고 이동로로 꼽혀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 현재 47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처음으로 야생 상태에서 반달가슴곰 세 쌍둥이가 태어나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원마을은 지리산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달궁계곡 최상부(해발 750m)에 자리잡고 있어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렸다.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토종꿀 양봉을 생업으로 삼았던 산골마을이다.

하지만 1987년 지리산관광도로가 개통되면서 식당·펜션 등 상업시설이 생겨 지리산 심층부가 훼손되고 계곡 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공단은 심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동의를 구했고 주민들은 철거를 허락했다. 공단은 총 사업비 211억원을 투입해 2013년부터 보상에 착수, 지난해 11월까지 마을 내 건물·도로 등을 철거하는 등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공단은 철거 지역이 급경사임을 고려해 사스레나무, 국수나무, 병꽃나무 등 지리산 자생수종 총 9종 4만8065그루를 심었다. 식재 나무의 자연스런 천이(시간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의 변화) 과정과 동식물 서식 등을 관찰할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난해 말에는 심원마을을 일대의 용도를 ‘마을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했고, 2036년까지 이 지역을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한백생태연구소와 호남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심원마을에 심어진 나무는 자연 식생이 우수한 인근 지역 나무 크기의 3.1% 수준이다.

연구진은 지리산 아고산대(고산지대와 산지대 사이) 훼손지역에서 주변 자연림의 20% 수준까지 나무가 자라는 데 20여년이 소요됐다는 점에 심원마을도 주변 자연림과 같은 상태가 되려면 5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이승준 남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5년간 지나도 식재한 나무들이 일정 크기



지리산 심원계곡에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상 성장해 심원마을은 100% 자연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며 “반달가슴곰뿐 아니라 설악산·월악산에서 증식 복원된

산양이 속리산까지 내려온 것으로 봤을 때 지리산에 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리도롱뇽



물거미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롱뇽, 물거미, 붉은어깨도요 등 25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됐다. 식물 미선나무와 층층동굴레 등 4종은 지정 해제됐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5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이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21종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확정된 멸종위기종 267종 중 I 급은 60종, II 급은 207종이다.

‘야생생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 신규 지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다.

야생생물 II 급은 현재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이다.

이번에 II 급으로 새로 지정된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물거미는 우리나라 거미종 중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

새,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어류 종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II 급에서 I 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아랑나비는 기존 I 급에서 II 급으로 내려왔다.

이번 목록 개정에서 개체 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층층동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한 것으로 추정돼 멸종위기종에서 관찰

종으로 바뀐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은 해제됐다.

호랑이·늑대 등 포유류(20종)와 해조류(2종), 고등균류(1종)의 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환경부는 새로 확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해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nibr.go.kr)의 ‘한국의 멸종위기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환경분쟁 10건 중 8건 소음·진동피해

공사 영향 농어업 피해 증가...예방책 세워야

지난 2015년 5월부터 무안에서 모텔을 공동 운영한 A씨 등 4명은 1년 뒤 약 40m 떨어진 곳에서 철도공사 시작되며 소음·진동·먼지에 시달렸다. 숙박객들의 환불 요청도 이어져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터널발파에 따른 진동이 심해 숙박객들이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A씨 등은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소음기준(70 데시벨) 등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당했다. A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정신·재산적 피해금 34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건설사에 통보했다.

지난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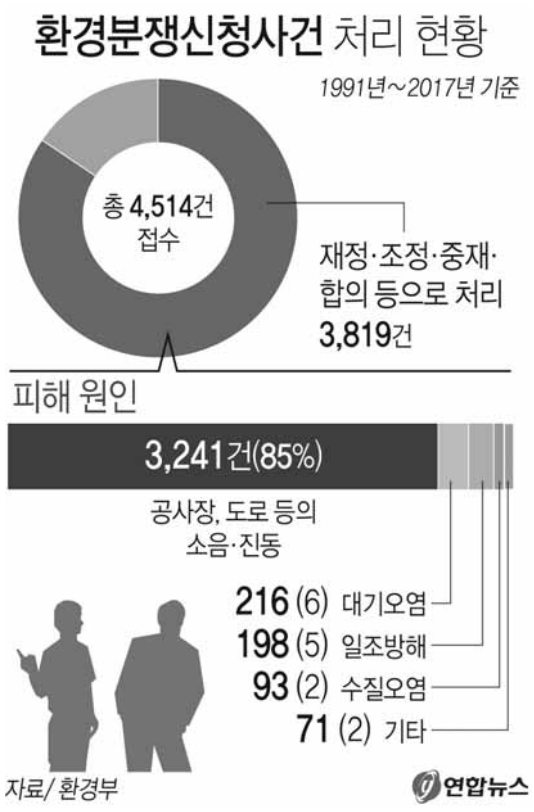
16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91년~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가 3241건(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모두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해 자진철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조정·중재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피해 내용은 ‘정신·건강률’이 2461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이 758건(20%)을 기록했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53건에 총 배상액은 612억9000만원, 평균 배상액은 3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음·진동



피해는 1655건(85%), 일조방해가 144건(7%), 대기오염 82건(4%), 수질·해양오염 40건(2%)을 각각 기록했다.

농어업 피해 배상 사례는 470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축 2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배상액은 161억3000만원이었다.

공사장 소음·진동에 따른 농어업 피해 배상 사례는 233건이었다. 1991년~1999년까지 19건(연평균 2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2017년까지 214건(연평균 12건)으로 급증했다.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배상 사례도 급증하면서 모두 96건을 기록했다.

최고 배상액을 기록한 사례는 지난 2007년 7월 13억4000만원의 배상 결정이 난 경남 창원시의 ‘신항만 준설도 투기장 해충에 따른 정신·물질적 피해’ 사건이었다. /김용희기자 kimyh@

‘찾아가는 생물자원관’ 2월14일까지 접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신청을 다음달 14일까지 받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까지 합평군, 인제군, 의왕시 등에서 총 99회 관람객들을 만났다.

올해 운영하는 이동형 전시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과 보존 노력을 소개하는 ‘우리땅 우리생물’, 동물들의 치열한 생존전략을 담은 ‘살아남아라’,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우수작 전시 및 야생생물

사진전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콘텐츠 대여 전시는 기생생물의 생태를 다룬 ‘기이한 생물들의 기발한 생존전략’, 생체모방을 다룬 ‘생물로부터 배운다’, 생물종 발굴과 멸종위기종 보존을 다룬 ‘찾아라! 우리 생물’, ‘지켜라! 지구 생물’ 등 4가지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이동형 전시관을 이용하고 싶은 기관은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nibr.go.kr)에서 대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

(주) 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송빌딩
Tel. (062) 382-8879

분양 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원동, 연제동, 유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